



작성자

중학생



책제목

어린왕자

학생 작성 글

▶어린왕자. 그는 어렸을 적 '나'가 그린 그림을 유일하게 이해해준 어린이였다. 남들은 '저건 중절모야' 라고 할 때, 코끼리를 삼킨 뱀이라고 말한 것이다. 이건 우리 어린왕자가 할 수 있는 능력인 것이다.

▶어른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중절모처럼 보이는 그림을 단지 중절모라고 믿는다. 다른 의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터키의 천문학자가 소행성을 발견해, 발표할 때에도 그랬다. 그의 옷차림만 보고 사람을 파악하여 저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은 마음의 눈이 닫힌 것이다. 어른들이 숫자를 좋아하는 이유도 마음이 닫혔기 때문이다. 마치 "10만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라고 했을 때, 어른들은 "와! 정말 멋진 집이다!" 라며 속으로 생각한다. 그 집을 산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을까. 그사람의 심성이 착한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어린왕자의 능력은 마음을 열어두어 창의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장미꽃과 양과의 전쟁을 생각하고 왜 장미는 가시을 만들까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단지 "가시는 적들에게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겼어! 그건 그저 그뿐이야." 라고 생각하고 마는 것들인데, 어린왕자는 다르다. 좀 더 깊이있게, 양들이 장미꽃을 먹는다면 가시는 장미꽃에게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를 하려고 애쓴다. 자신이 알고 있는 장미꽃이 어느날 양에게 먹힐 것을 걱정하면서 말이다.

학생 작성 글

- ▶ 어른들은 아이가 빨리 철들기를 바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아이가 영어를 잘 하기 위해 영어테이프를 틀고 수학문제집을 가져온다. 아이가 그것을 잘 따라 한다면 잘 한다고 칭찬한다. 아이는 어른들이 칭찬하기 때문에 그저 배우는 대로 따라한다. 그러는 동안 마음은 점차 닫혀지고 만다. 어른들처럼 모자처럼 보이는 것을 모자라고만 생각한다. 남들이 하는 것처럼 계산을 하고,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어린왕자가 아닌, 다 자란 왕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 ▶ 이제 세상은 창의력을 요구하고 있다. 좀더 독창적이지만 의도에 벗어나지 않는 능력을 요구한다. 하지만 벌써 자라버린 우리 왕자들은 남들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만다. 그래도 어른들은 우리 왕자들을 좀더 어린왕자로 남길려고 하지 않는다. 이 책을 읽고 우리들을 어린왕자로 남겨두어 나중에 마음을 한껏 열고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도록 어른들이 좀 도와준다면 좋겠다.
- ▶ 어린왕자는 아직도 나에겐 어려운 책이다. 그래도 어린왕자는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창의력이 풍부하여 독창적인 생각을 하는. 다시 어렸을 적 어린왕자로 돌아가 세상이 찾고 있는 어린왕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첨삭지도

◆ 대상도서에 대한 이해분석력

▶OOO 학생은 어린왕자의 내용을 아주 적절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논지를 펴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왕자로 대표되는 어린이들의 창의력에 대한 설명으로 장미꽃과 가시 그리고 양의 내용을 인용한 것은 아주 좋았습니다. 창의성은 낯설게 보기에서 시작합니다. 당연하게 모든 현상을 받아들이면 호기심도 없고 어떠한 창조나 변화, 발전도 없을 것입니다. 현상을 그저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의 원인과 존재의 이유 그리고 움직임을 유발하는 힘의 관계를 파악하는 창의적 사고는 논술에서도 중요한 생각법입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가 보이네요. 첫 문단에서 "어린왕자. 그는 어렸을 적 '나'가 그린 그림을 유일하게 이해해준 어린이였다." 나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어른들이었습니다. 학생의 글은 어린왕자가 어린이들 중에 유일하게 그림을 이해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는 다음으로 전개되는 내용에서 어린이와 어른을 나누어 특성을 대조하고 있는 글의 진행에 적절치 않습니다. (여기에서 어린왕자는 고유명사적 의미보다는 어린이의 특성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창의적 사고력

▶OOO 학생은 글에서 어른의 특성과 어린이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른의 특성으로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숫자를 좋아하는 물질주의적 사고, 닫혀진 마음으로 표현되는 폐쇄적사고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의 특성은 반대로 열린 마음과 창의적 사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교육)을 마음을 닫아가고 창의성을 잃어가는 과정이라며 안타까워하고 있네요. OOO 학생의 이런 논지는 어린왕자의 주제와 닮아 있습니다. 어린왕자 읽기는 작가의 주장과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으나 학생 자체의 시각이 없습니다.(아니면 작가의 시각과 100% 일치 하던가요)



참삭지도

◆ 창의적 사고력

▶ 창의적 사고는 자기의 시선으로 새롭게 보는 것입니다. 000 학생의 주장에 예상되는 반론을 하나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른이 되가는 것은 즉 사회화의 과정은 그 아이가 속한 문화를 배우는 것이며,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것이 일정한 사고 유형을 형성하고 고정시키는 면이 없지 않으나, 어른이 되어 현실에서 직접 삶을 꾸려 나간다는 것은 인생의 진정한 깊이를 알아가는 과정이며, 자기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000 학생이 지적인 것처럼 어린이처럼 열린 마음의 창의적 사고력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노인의 깊은 사유와 삶의 지혜 역시 세상을 지탱하고 유지해나가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000 학생이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력을 강조한 것은 좋으나, 너무 감상적으로 빠져 반론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 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탐색지도

◆ 문제 해결력

▶ 000 학생의 글에서 문제 해결에 해당하는 문단은 끝의 두 문단으로 보입니다. “이제 세상은 창의력을 요구하고 있다. 좀더 독창적이지만 의도에 벗어나지 않는 능력을 요구한다. 우리들을 어린왕자로 남겨두어 나중에 마음을 한껏 열고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좀 도와준다면 좋겠다.”에서 어른은 어린이들의 특성을 보존하여야 한다 정도의 문제해결방안이 보입니다. 어른들이 어린이들의 특성을 보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4번째 문단에서 영어공부와 수학공부가 아이들의 마음을 단게 하고 철들게 한다고 했으니, 영어와 수학공부를 시키지 말아야 하나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교육 또는 사회화는 인류가 쌓아온 기존의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며, 생활방식과 세계와 인간을 보는 가치관을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교육과정에서 학생이 지적인 대로 창의적 사고력의 향상보다, 지식의 암기가 중요시 되어 창의적 사고가 약화 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그런 교육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문명의 종말로 나타나 더 이상 지구상에 인간다운 인간은 없게 될 것입니다.

▶ 좀 더 구체적으로 어린이의 융통성 있는 사고력을 향상시킬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세상에 인생에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자기 인생을 책임감 있게 잘 운영하면서, 동시에 어린이의 창의적이고 유연하며, 항상 새롭게 세상을 인식하는 사고력을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 문장력 및 표현력

▶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감상적인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책의 비유적인 표현이 그대로 글에 사용되고 있으며 “어린왕자가 아닌, 다 자란 왕자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처럼 비유적이고 감상적인 표현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논술은 논리적 글입니다. 자신의 논지를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진행시켜야 합니다. 비유의 부적절한 남용은 글의 논지를 모호하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첨삭지도

◆ 문장력 및 표현력

▶ 서론에서는 주의 환기, 관심 유도, 본론의 방향제시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논자의 서론에서는 본론의 방향제시가 미흡합니다. 서론을 통해 논술문의 논의를 전개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시된 문장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가와 그것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점을 보강한다면 아주 깔끔한 서론이라고 보여 집니다. 본론의 두 문단에서는 문단의 균형에 있어 첫 번째 문단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근거의 제시가 부족하여 내용과 글의 분량에 있어서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결론은 본론의 내용을 통해 주장하고자 했던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본론에서 제시된 근거를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본론의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 결론으로써의 뚜렷한 인상은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현상 다소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해보고자 합니다. ①, ③, ⑤번 문장에서는 문장 성분이 생략되거나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장 ③번에서 ④번으로 이어지는 글에서는 구체적인 근거의 제시가 없어 내용의 비약이 느껴집니다. 결론 단락인 [3] 문단에서 시작부분의 접속어 그러므로는 결론의 시작으로 볼 때 생략하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서론, 본론, 결론 문단이 모두 하나하나의 완전한 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⑥, ⑨번 문장에서는 구어체를 사용함으로써 객관성을 들어내야하는 논술문에는 부적절한 문장이 됩니다. ⑦, ⑧번 문장의 내용의 호응이 순접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⑧번 문장의 접속어 그래서로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⑧번 문장을 본론의 새로운 문단으로 구성하여 도서내용을 바탕으로 한 미생물의 이로운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인간과 미생물의 관계를 생태계 차원에서 볼 때 상호작용을 통해 상부상조해야하는 공생관계임을 제시하는 한다면 글의 구성상의 문제와 표현상의 문제가 모두 보강 될 것입니다.



총평

▶ 000학생은 어린왕자를 통해서 어른이 된다 것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고 있네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학생이 말처럼 살아가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겨서, 더 이상 숨겨진 근원을 생각하지 못하는 창의력을 잃어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나쁘기만한 일 일까요? 피터팬의 작가가 어른을 보는 시각과 학생의 시각이 닮아 있는 것 같아 참 흥미롭습니다.